

광주·전남 다시 시작하자 **■ 경제**

대기업 편중 산업기반 취약 기술력 키울 인프라 확보를

■ 광주

최근 10년새 광주 경제는 괄목할만 하게 성장했다. 2001년 14조3600억원에 불과하던 지역내총생산(GRDP)이 2010년 24조4281억원으로 70% 증가했고, 1인당 GRDP도 1024만원에서 1684만원으로 64% 늘어났다. 특히 수출성과는 눈부시다. 2001년 31억 달러이던 수출액은 지난해 133억 달러로 11년 만에 4배 이상(329%) 급증했다.

광주가 서비스업 소비도시에서 제조업 중심의 생산도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 비중 22%에 불과=광주의 산업기반은 취약하다. 제조업 비중이 21.7%로 전국 평균(25.0%)에 크게 못 미치고, 생산·수출도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

기아차·삼성전자·금호타이어 등 13개 대기업이 전체 지역생산의 66.4%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특색이다. 중소기업도 이들 대기업에 기대어 생존하고 있다. 대

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들도 동반 성장하고, 반대로 대기업들이 위기를 만나면 지역경제가 흔들린다. 단적인 예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물량 해외이전이 부른 광주 가전업체의 위기다.

자동차·가전 등 주력산업 구조 탄탄해 재도약 기회

기술력을 키울 수 있는 연구개발 인프라의 부재도 문제다. 대기업의 존도는 강하지만 생산공장이라는 한계 탓에 지식기반이 취약하고 기술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협력업체 80% 이상이 자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부품을 단순 가공·조립해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광주경제는 기아차와 삼성전자가 기점만해도 심한 감기몸살을 앓게 되는 구조”라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기술교류를 통한 협력관계가

보다는 단순 조립생산의 종속관계여서 성장의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구조적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재도약의 호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구조 고도화·융합형 서둘러야=기아차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해외 이전 종결 및 프리미엄제품 본격 생산 등 주력산업의 성장구조가 탄탄하다는 것이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특구 지정, 기업·연구기관·지원기관의 집적화 등 든든한 경제정책 거버넌스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류세선 광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 단장은 “주력산업인 자동차·가전·광산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융합형 혁신기술 개발 등 미래산업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능형 자동차, 친환경 융합소재, 첨단 보안·안전 산업, 차세대 네트워크 산업 등으로의 융합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전남 각계 진단과 제언



최종만 광주상의 부회장
“엑스포 효과 최대화”



조승제 조선대 교수
“기업활동 긍정 인식”



김기홍 경실련사무처장
“광주은행 환원 중요”



유동국 테크노파크원장
“새 성장동력 육성을”



이건철 전발연 원장
“중국도전 준비할 때”

광주·전남 지역경제가 열악한 탓에 현안도 많다. 여수엑스포와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행사를 시·도민이 합심해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대화해야 한다.

또 차세대 다목적가속기 건설, 연구개발특구 가시화,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자체·상공인·시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지자체는 광역발전정책인 2단계 광역신도산업을 조기에 추진되도록 촉구하고, 상공인들은 끊임없는 기술·제품 개발로 경쟁력을 갖춰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필요하다. 광주지역의 경제구조는 기아자동차·삼성전자 등 대기업 의존도가 높다. 대기업의 안정적인 발전 속에서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기업들도 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연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과 기업인들의 상호 긍정적인 사고와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로 광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상생 전략이다.

경제, 지방분권, 복지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광주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더 많은 재원이 이전될 수 있도록 세계 개편에 힘써야 한다.

서울과 지방은 물론 지역 내에서도 차별없는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계 등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지난 10여년 동안 광주는 자동차와 가전이라는 양대 주력산업의 견고한 발전과 광산업이라는 신 성장동력의 발굴에 힘입어 생산도시로 변모해 왔다.

특히 민선 5기 들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기술과 사람’이라는 핵심요건을 갖추게 된 점은 획기적인 성과라 할만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유치와 연구개발(R&D)특구 지정으로 우수한 과학기술인이 모여들고, ‘기초연구→응용연구→사업화’로 연계되는 ‘Science to Business’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10년은 산업 간 또는 기술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해야 할 것이다.

전남 경제의 큰 축인 화학·선박·철강 산업에 대한 중국의 거센 도전을 미리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 이미 국내의 유명 경제학자들은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토대로 세계 경제를 휩쓸고 있는 중국을 바라보며 “더 이상 제조업은 중국과 경쟁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이라는 큰 벽 앞에서 전남 경제의 가능성도 있다. 바로, 식량과 에너지다.

지난해 전남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30% 이상 늘어난 2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깨끗한 농수산물을 생산·가공·유통·수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녹색 에너지·친환경 농산물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을

■ 전남

전남 경제는 제조업(39%·2010년 기준)과 서비스업(40%) 비중이 크다. 전통적인 농업 중심의 지역에서 화학·철강 산업이 자리잡아가면서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5년 42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010년 56조5000원으로 32%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대부분 제조업이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치르면서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 산업의 큰 축이었던 조선 분야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흔들리는 전남 경제=전남 경제는 광양·여수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의 화학과 철강, 서남권의 조선에 편중돼 있다.

하지만 최근 2조원대 대형 프로젝트였던 신안 조선타운이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등 전남 경제의 한 축을 맡았던 조선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화학과 철강도 풍부한 자원을 앞세워 저가 공세를 펴고 있는 중국에 고전하고 있다.

기업유치 인력창출 연결 ‘잘사는 전남’ 만들어야

기업 유치가 직접적인 인력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도 ‘잘사는 전남’ 건설의 걸림돌이다. 전남 경제활동인구 4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이어서 신규 입주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창출이 쉽지 않은 구

조다.

◇에너지·친환경 새로운 동력=지난해 전세계 녹색에너지 시장규모는 267조원을 넘어섰다. 전남도도 녹색 에너지에 눈을 돌려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하고, 관련 기업을 키우는 등 풍력산업 전반에 대한 장·단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풍력시스템을 시험할 수 있는 인증 및 실증 연구 테스트베드를 갖추고 M급 풍력 시스템을 갖춘다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녹색에너지 분야는 전북, 경남·북 등 국내 지자체들과의 유치 경쟁이 치열하고, 지역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경북이 에너지 분야 전문가와 포항 공대 등과 산·학·관 협력을 통해 녹색에너지 분야를 육성하고 있는 점은 전남이 서둘러 배워야 할 점으로 꼽힌다.

전남의 친환경 농수산물 수출이 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해 도내 농식품 수출액은 2억6000만달러를 기록, 2010년보다 31.1% 늘었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어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나주, 영광, 완도 등지의 시·군 유통회사 6곳, 돼지, 멜론, 계란 등 품목별유통주식회사 13개소가 설립돼 농수산물 유통과 수출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전남발전연구원 김현철 기획경영실장은 “지역 대학들이 녹색에너지 분야를 특화시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농업 또한 과거의 산업이 아니라, 식량 전쟁에 대비하는 미래의 유망 산업으로 육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www.krb.co.kr

광주일보 since 1952

14년 연속 (1998~2011) K3 인증제품 37만여건의 경쟁력자수 1999~2007년 연속 가정용보일러 A/S 부문 가정용보일러 브랜드대위 1위 인건비율 수상 5년 연속 1위 수상 품질 경쟁 우수기업 2008년 서비스대상 1위

대한민국 100대 기술 선정 귀뚜라미보일러

가스비 절감 및 온수가
충분해야 하니까
보온탱크를!

안전해야 하니까
지진감지기
가스누출탐지기를!

한국 온도에 맞는 귀뚜라미 저탄소 보온탱크 보일러
대한민국 100대 기술에까지 선정되었습니다

한국공학한림원과 지식경제부가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산업의 기틀을 이룬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조선, 철강 등의 대한민국 산업 발전사의 주력 제품 중 핵심 기술 100가지를 선별한 특별한 상입니다.

1588-9000

4번 티어 보일러

거꾸로 티어 보일러

빛의만평

- 김중두

내가 지금 너하고 놀게 됐냐?!